

'91 하반기 채란업 전망

이보균

본회 지도조사과 대리

〈서론〉

지난 79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계란값은 84년 대란 10개에 510원으로 매년 50원씩 인상되는 초호황의 경기를 누렸다.

채란업계가 이같은 호황을 누리자 산란실용계 값은 덩달아 올랐고, 종계업자들은 많은 병아리를 팔기 위하여 종계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 종계생산만으로는 수요가 절대 부족되어 외국에서 다수를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실용계의 과잉 생산으로 '88년부터 연평균 30원씩 4년간 하락되어 큰 불황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전업 또는 폐업한 농가의 속출로 또다시 89년부터 생산이 부족되어 고가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불황 이후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난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 경인지역의 대란 10개 가격은 89년 566원, 90년 599원으로 88년 대비 각각 47%, 56%가 인상되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골짜기가 있듯, 우리 양계업은 지금까지 호·불황이 2년반 가격으로 연속되어 왔다.

91년 들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계란가격은 향후 어떻게 형성될 는지에 관하여 최근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코자 한다.

1. G.P.S(원종계)

산란 G.P.S(원종계)의 수입은 85년 이후 증가 일로에 있다가 88년 난가불황의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90년 7,800수, 91년 5월말 현재 5,580수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91년 P.S(종계)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92년부터 실용계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연도별 산란 G.P.S 수입 현황

(우, 우라인 기준)

연도별	85	86	87	88	89	90	91.5
수수	2,000	4,200	6,800	1,500	6,700	7,800	5,580

2. P.S(종계)

산란종계 입식현황을 보면 88년까지는 40만수대 가 변화없이 입추되어 왔으나 89년에 갑자기 50만 수가 입추되더니 90년은 89년 대비 21.3%가 증가된 606천수가 입추되었다.

특히 91년 1~5월까지는 242,707수로 이는 90년 동기 186,202수 대비 무려 30.3% 증가된 것이다.

3.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89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된 산란중계의 영향으로 실용계의 생산잠재력 또한 큰폭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91년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은 ¼분기 9,197천수, ¼분기 9,469천수로 90년 동기 대비 공히 20%증가에 그쳤으나 ¾분기중 7월 45.5%, 8월 50.1%, 9월 51.4% 각각 증가되었다.

이런 실용계의 생산잠재력의 증가 추세는 90년 중계입식 현황으로 보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실용계의 폭락이 예견된다.

4. 병아리 가격 추이

88년 산란실용계 가격은 수당 414원으로 낮게 거

※병아리 가격(수당)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9	600	620	631	650	618	515	382	424	423	384	424	495
90	575	615	650	629	632	634	631	644	663	668	675	675
91	675	669	654	532	451							

래되었다. 그러나 89년부터 계란값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용계가격도 함께 상승하여 89년 514원, 90년 641원이 기록되어 88년 각각 24.1%, 54.8%가 인상되었다.

근자 실용계의 최고 가격은 90년 11월부터 91년 1월로 수당 675원이었으며, 최근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하락의 원인은 실용계 생산과잉에 따른 계란가격 인하의 영향으로써 향후 계란값이 상승기류를 타지 않는한 실용계가격은 약보합세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산란중계 입식현황(우기준)

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5	24,160	30,590	21,700	33,900	35,700	39,110	37,530	3,692	3,120	44,000	44,660	121,260	439,422
86	20,200	26,300	18,040	8,900	24,800	56,424	55,100	21,760	29,600	45,150	37,300	90,630	434,204
87	28,175	29,255	19,160	23,350	65,660	82,500	43,580	35,100	4,500	15,000	49,900	53,137	449,317
88	51,988	26,000	16,077	27,920	65,624	30,725	8,325	42,034	2,885	23,952	49,372	55,580	400,482
89	84,937	40,147	23,475	41,646	56,067	28,400	24,025	14,750	67,450	45,300	40,550	33,201	499,948
90	29,200	41,900	32,600	20,100	62,102	121,743	27,785	23,800	45,300	80,208	59,004	62,157	606,199
91	50,351	53,538	44,760	38,050	46,000								

※실용계 생산잠재력

(단위 : 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90	2,690	2,522	2,456	2,596	2,678	2,646	2,449	2,380	2,394	2,383	2,256	2,563
91	3,043	3,198	2,956	2,936	3,141	3,392	3,564	3,573	3,625			

※초생추사료생산실적

(단위 : 천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8	2.96	2.99	4.81	5.18	4.37	3.12	2.45	2.68	3.12	3.45	3.73	3.34
89	2.63	3.39	5.91	5.98	5.53	4.65	4.18	3.90	4.06	3.64	3.76	3.68
90	3.70	3.81	5.20	5.16	5.87	5.21	5.05	5.64	5.42	5.18	5.48	5.72
91	5.14	5.38	6.24	7.46	6.36							

5. 초생추사료생산실적

초생추배합사료 생산실적은 89년 51.3천톤, 90년 61.7천톤이 생산되어 88년 대비 각각 21.7%, 46.2%로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월까지의 89년 23.5천톤, 90년 23.7천톤으로 88년 20.3천톤 대비 각각 15.6%, 16.9%의 증가를 보여 비교적 폭이 적었으나, 91년은 30.6천톤으로 무려 50.6%나 증가되었다.

최근 들어 초생추사료 생산실적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계군이 산란을 시작하는 금년 ¼분기 시작될 무렵부터는 급격한 계란생산 증가가 확실시된다.

6. 계란가격 및 산란사료생산실적

80년대 들어 연평균 계란값이 가장 낮았던 해는 지난 88년으로 경인지역의 대란 10개 평균값은 385원이었으며, 7월은 272원까지 거래되었다.

그해 산란사료생산실적은 1,565천톤이었다. 반면 89, 90년은 1,330천톤, 1,465천톤으로 88년 대비 각각 15%, 6.4%가 감소되었으며, 그 결과 계란값은 566원, 599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1~5월까지 산란사료생산실적은 88년 699

천톤으로 89, 90, 91년 대비 각각 14.1%, 11.1%, 7.2%가 감소되었다.

※연도별 대란 생산자가격 (단위 : 10개/원)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가격	319	389	440	495	510	484	439	391	385	566	599	399

7. 산란실용계생산실적

88년 산란실용계는 20.6백만수밖에 생산이 안되어 89년부터 계란값은 폭등하다시피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가격이 줄기차게 오르자 종계수입 급증은 물론 종계노계를 환우까지시켜 생산에 가담, 89년 초부터 실용계는 과잉생산되었다.

그 결과 금년 초부터 계란값은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금년 1~5월까지 생산된 양으로 보아 향후 만만찮은 계란생산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금년 ¼분기 큰알 생산이 영향을 미칠 지난 1월의 실용계 생산실적은 2천5백만수로 90년 1월 대비 무려 27.9%나 증가되었다.

8. 백색계란이 사라지고 있다.

※산란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9	118,325	111,277	127,001	120,100	124,344	113,640	110,113	113,498	119,474	119,299	122,293	136,178
90	125,249	119,228	129,787	122,516	125,296	118,938	109,040	111,045	124,821	117,713	121,813	139,506
91	137,242	128,083	136,494	136,064	139,053							

※산란실용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88	1.74	2.21	2.43	2.37	1.79	1.28	1.34	1.42	1.70	1.74	1.40	1.19	20.61
89	1.36	2.57	2.68	2.42	2.56	2.35	1.93	2.24	2.20	1.96	1.81	1.90	25.98
90	1.97	1.96	2.30	2.12	2.23	2.23	2.41	2.13	2.03	2.05	2.29	2.09	25.81
91	2.52	2.05	2.19	2.04	2.15								

※산란실용계 백·갈색 분양수(6대농장)

(단위 : 천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백 색	89	318	696	657	653	672	506	311	247	259	232	222	289
	90	293	279	338	327	345	433	427	377	250	317	310	316
	91	434	238	292	104	30							
갈 색	89	1,069	1,330	1,259	1,195	1,276	1,166	1,111	1,288	1,299	1,052	1,186	1,209
	90	1,315	1,266	1,557	1,477	1,736	1,611	1,837	1,691	1,551	1,717	1,626	1,459
	91	1,646	1,401	1,454	1,217	1,365							

※산란노계 가격

(단위 : 수당/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89	백색	1,138	1,113	1,138	1,025	625	588	660	793	628	650	613	720	808
	갈색	1,675	1,663	1,775	1,125	963	975	1,100	1,433	1,100	900	1,038	1,100	1,237
90	백색	725	888	1,250	1,450	1,213	1,140	1,175	1,280	950	763	790	563	1,016
	갈색	1,150	1,388	1,825	2,250	1,963	1,928	1,775	1,910	1,525	1,088	1,010	838	1,554
91	백색	575	650	600	550	513	300							
	갈색	913	1,150	1,000	950	938	600							

최근 채란농가에서 갈색계 일변도로 입추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6대 산란종계장에서 판매된 산란실용계의 백·갈색 비율은 지난 89년 35 : 65였고, 90년은 22 : 78의 비율로 갈색계의 점유율이 높아 지던 차에, 금년 들어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자 농가에서는 백색계를 입추치 않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종계장에서 백색병아리를 분양할 수 없게 되자 종란을 식란 처분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4월 백·갈색의 판매는 8.5 : 91.5의 비율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더니, 5월은 : 2.2 97.8로서 갈색일변도로 입추되고 있다.

이토록 갈색계군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최근 계란값이 낮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중량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란과 대란과의 가격차(90년 개당 평균 8원)가 크기 때문이다.

백색계의 경우 78주령 평균난중은 64g인 반면 갈색계는 이보다 2g이 무거운 66g이다. 등급별로

※백·갈색 등급별 비율

구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백색	5.12	48.36	32.58	10.78	2.47	0.69
갈색	9.42	51.21	29.39	8.47	1.26	0.25

는 갈색계의 일생중 난중은 특란(60g)이상이 78.78%를 차지하는 반면 백색은 75.35%로 갈색계가 큰 알 생산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계란값이 저가일 때일수록 갈색계의 선호는 당연한 것이다.

9. 산란실용노계가격

89년 1/4분기에 과잉 입추된 산란실용계의 영향으로 최근 노계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89년, '90년 백색노계 가격은 601원, 808원, 갈색은 1,049원, 1,237원에 거래되었던 반면 91년 1~5월까지 가격은 백색 531원, 갈색 925원에 각각 거래되었다.

지난 6월중 노계값은 백색 300원, 갈색 600원인데도 불구하고 출하할 물건이 팔리지 않아 다수의 농가가 어쩔 수 없이 강제환우를 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결국 1/4 분기중에 최대 계란생산에 가담
케 되어 하절기 이후 계란값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망〉

90년 10월 경인지역의 대란 10개 평균값은 697원
으로 금세기 최고가격을 기록, 90년도 평균 599원
으로 끌어 올리는데 최대의 역할을 했다.

이처럼 계란가격이 고가로 지속되자 생산농가에
서는 대부분 강제환우를 시켰고, 종계업자는 수입
을 통해 다수를 확보하고 실용계 생산 체제에 들어
갔다.

그 결과 '90년 1/4분기부터 병아리는 과잉 생산에
돌입했고, 91년초부터 계란 가격은 큰 폭이 인하되
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하절기 마다 변질된 계란이 유통되어 많은 문제
가 제기되었으나, 뽀족한 대책도 없이 금년 여름철
을 맞이하게 되었다.

6월말 현재 특란을 제외한 전 품목이 밀리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오래지 않아 큰 알까지 체화가 예
상되는 가운데 금년 하절기에 최대의 산란율을 보
일 지난해 1/4분기의 초생추사료생산 실적은 16,405
톤으로 89년 동기대비 무려 48%가 증가되었다. 따
라서 7월중순경부터 전품목의 하락이 예상된다.

예년의 경우 8월 하순부터 계란값은 회복되는 시
기였으나, 노계폭락시 환우계군이 워낙 많았고 4
~5월 초생추사료 생산실적으로 보아 금년 1/4분기
부터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계란값은 지난해 대비 낮게, 그것도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계**

